



총괄



미야모토 타로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

아동·육아 지원에는 ‘다이아몬드 효과’가 있다. 여성 취업을 늘림으로써 지원의 힘을 늘리고, 출산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의 힘을 강화한다. 또 유치원·보육원 일체화 등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취학 전 교육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힘을 축적해 빈곤의 연쇄를 끊을 수 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빈곤 대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높은 취학전 교육 단계에서 제대로 인지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향후 지방에서는 고령자 수가 적어지고 오히려 도시에서는 후기 고령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도시는 땅값이 비싸고 서비스도 비싸다. 거꾸로 지방에서는 시설도 서비스도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으나 서비스 대상 노인이 감소한다. 예를 들면, 야마가타현 후나가타마치는 고령자 시설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으나, 입소 고령자를 현지에서 확보하지 못해 도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유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정든 지역에서 산다는 지역포괄케어 원칙에서 벗어난다. 개호 이주가 아니라 더 이른 단계에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여 질 높은 제2스테이지를 즐기는 인생 설계가 정착하면 일본의 각 지자체가 상생·공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앞까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한·중·일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 지역의 성공이 다른 지역에서 활용되고 지역이 건강해지기 위한 경쟁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



안상훈 서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활성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여성을 가정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초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정책도 있다. 예를 들면, 정치가가 표를 모으기 위해 보육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전업주부에 머물게 되었다. 또 전일제 보육 제도를 도입해 보육원이 정부로부터 아동 1인당 보조금을 받도록 한 결과,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짧은 전업 주부 자녀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여성고용 촉진이라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일이다. 따라서 현금 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고령화 대책도 연금 등 현금 복지보다는 고령자의 고용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65세 퇴직 후 40년간 고령자를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퇴직자는 연금이 보장되어 있어 높은 급여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멘토나 어드바이저 등의 직업을 선호한다. 반면, 학력이나 기술력이 낮은 사람들은 노노간병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향후는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로 이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합이 갖는 의미는 크다.

테마 2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참가 지방정부	한국 : 충청남도 서산시 베트남 : 푸토성, 푸토성 비엠티시 일본 :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미야기현 다가조시, 나라현 아스카무라, 나라현 시모이치초
강 사	구스미 도키오 니가타현 미쓰케시장

프레젠테이션



한국/서산시 KIM, Young In 부시장

한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서산시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Sunrise City, Happy Seosan’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농축수산물 도시, 교육복지 도시, 경제 도시, 문화 도시, 생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일손 부족과 농가소득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위축, 세금 감면 조치에 따른 재정난 등의 문제도 있다. 시민의 요구도 늘어나 국내 지자체는 재정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산시는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가 승인되면서 9,1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만 5,000명 고용 창출, 31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서산시는 고용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5S(Smile, Simple, Soft, Speed, Smart) • 5품(두품, 입품, 심품, 손품, 발품(Effort with Brain, Mouth, Heart, Hand, Foot))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업무에 힘쓰고 있다.



일본/아스카무라 모리카와 유이치 촌장

아스카무라는 회합 참가 지방정부 중 인구 규모가 가장 작다. 1,400년 전 아스카무라에는 일본의 수도가 있었다. 1980년부터 역사적 경관 보전을 위한 특구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생활 환경 정비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오사카 도심에서 1시간 미만의 거리에 있으면서 매우 낙후되어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바닥이 매우 좁은 상태로 심각한 저출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아스카의 매력이 무엇인가를 재고하고 아스카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인 마음의 고향’으로 손색없는 경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정반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스카무라는 여러 ‘일본의 시작’의 땅이다. 그것을 자원으로 하여 마을 전체를 지붕이 없는 오픈 뮤지엄 ‘아스카 종합 박물관’으로 인식하고, 내방자 시선에서 아스카 브랜드 확립에 임해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시스템과 정보 발신 시스템을 오감(五感) ‘觀(볼거리), 感(체험), 泊(숙박), 食(음식점), 買(선물)’로 요약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이 태어난 토지인 아스카를 알기 쉽게 알리는 전시장으로 만들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도쿠시마현 오가와 다카시 지역진흥총국장

지방에서는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가 빠르게 표면화되고 있다. 도쿠시마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를 키워드로 과제 해결에 임해 왔다. 첫 번째 위기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이행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현 전체에 CATV망과 정보통신 기반을 동시에 정비하고 전국 굴지의 브로드밴드 환경을 갖추었다. 두 번째 위기는 인구 감소로 빈 집 등이 급증했으나 현지 NPO와 주민, 행정의 결속하여 지역 재생에 도전해 빈집과 유휴 시설의 이용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새틀라이트 오피스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약 2년간 18사가 진출해 40명의 현지 고용이 창출되었다. 본사를 도쿄에서 이전한 기업도 있어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ICT를 활용한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 방식은 개호 퇴직 회피와 육아 세대의 일자리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일본에 빼놓을 수 없는 업무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NPO와 현지 주민, 진출 기업이 일체가 되고 행정은 확실한 지원을 실시해 ‘필요한 사람을 부른다’라는 자세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이 기업을 부르는 연쇄와 순환을 낳고 있다.

지역 재생의 처방전이 되는 ‘도쿠시마 새틀라이트 오피스 프로젝트’를 향후 일본은 물론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일본/나라현 ——— 나카 고지 산업·고용진흥부장

나라현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한방 메카 추진 프로젝트’, 숙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환경 정비 ‘현영 수영장 철거지 활용 프로젝트’, 여성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성 번역가 육성·인문계 문헌 정보 발신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한방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국내 시장은 착실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원료의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라현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강점과 지역 산업으로서 배치 약업이 발전해 온 장점을 살려, 약용 작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체제를 구축해 한방 6차 산업화를 통한 현내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나라현은 당일치기 관광객이 많고 숙박 관광객이 적어 현 소유지를 활용한 호텔 유치와 주변의 일체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체재형 숙박 관광의 추진을 위해 행정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 일본의 인문계 문헌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많으나, 번역되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교양 높은 잠재적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번역가 양성 학원’을 개설하고 1년간 집중 육성해 인터넷과 HP로 해외에 알리는 동시에 여성이 번역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확보와 지역 경제가 한층 발전하도록 한다.



베트남/푸토성 ——— CHU Ngoc Anh 지사

푸토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80km 거리에 있다. 국왕의 절이 있고 2000년 전부터 베트남인의 고향으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민요 ‘서안(Xoan)’ 등 나라(奈良)와 같이 역사와 문화, 문명을 지니고 있다. 도상국의 성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개발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국제 관계를 심화하여 여러분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다. 단, 근린 국가들과 비교하면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푸토성은 산업·관광 모두 2010년에 밀레니엄 목표를 달성했다.

사회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프라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처로서 인식되도록 힘써왔다. 또 1인당 1,000달러의 소득이 1,100달러를 넘는 등 중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해외경제 정세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투자가 억제되어 있어 행정 제도의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생산 연령 인구가 60% 이상으로 늘고 고용 수요도 있어 성 차원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고 있다.

그룹 토의 참가자들



베트남/비엠펙시
NGUYEN Mahn Son
부시장



일본/니가타현
다나카 히데아키
국제과정책기획원



일본/야마나시현
야지마 다카오
산업노동부장



일본/기후현
소미야 야스히로
상공노동부장



일본/다가조시
기쿠치 겐지로
시장



일본/시모이치초
스기모토 다쓰아키
정장



나라현의회
오카 시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총 괄



구스미 도키오 니가타현 미쓰케시장

이들간의 많은 훌륭한 발표가 지금의 과제들을 명석하게 분석하고 있어 매우 흐뭇했다. 어느 지역에도 과제가 있으나, 종래는 그저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취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최근에는 과감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발상의 역전’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지금은 도전을 계속해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이다. 참가 지방정부 여러분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임하고 있다고 느꼈다.

지방정부는 시책에 대한 이해를 시민에게 확대하고 양해를 얻기 위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의식 변혁이 요구된다. 주민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시점을 가지고 주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운영한다는 관점을 확인하면서, 시책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배울 지혜가 많다. 서로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면 교류의 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담당한 테이블에는 고대사라는 지역 자원을 지닌 매우 매력적인 도시가 참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그 사실에 주목하여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낭만을 미래로 이어가고 싶다. 꼭 서로 연계하여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테마 2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참가 지방정부	필리핀 : 오로라주 발레르시 한국 : 충청남도, 경상북도 일본 :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가가와현, 나라현, 니가타현 니가타시, 나라현 나라시, 나라현 이카루가초, 나라현 교토초
강 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프레젠테이션



일본/가가와현 ———— 하마다 게이조 지사

가가와현에서는 지난해 7월 향후 10년을 내다본 ‘가가와현 산업성장전략’을 책정하고 ‘힘차고 착실하게 성장하는 경제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전략 방침은 3가지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악영향의 최소화와 호전,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산학관·타업종 등 다양한 연계 촉진, 해외 활력의 흡수 등이다.

전략 체계에서는 성장 동력 6개 분야, 5대 중점 프로젝트, 수평적 전략을 마련했다. 성장 동력 분야로서 지역자원과 전통기술을 활용한 식품·바이오 관련 분야, 건강 관련 분야, 첨단기술 및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제조 분야, 에너지·환경 관련 분야, 고품질 농산물 제조 분야, 관광 관련 분야 등 6개 분야를 정하고 각각의 시책을 실시한다. 중점 프로젝트에는 ‘가가와 회소당 화이트 벨리’ 프로젝트, 올리브 산업 강화 프로젝트, K-MIX 관련 산업 육성 프로젝트, 제조업 ‘온고지신’ 프로젝트, 세계에 PR하는 ‘아트 가가와’ 프로젝트가 있다. 횡단적 전략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해외 전개 지원,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확보, 산업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시즈오카현 ———— 오스카 요시로 부지사

수도권과 주쿄권(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 사이에 위치한 시즈오카현은 인구 374만명(일본 전체 3%), 현내 총생산 15.8조엔(전국 10위)이다. 그러나 현재 리먼 사태와 엔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리스크 분산에 따른 현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이전으로 산업 공동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유효구인배율도 리먼 사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산업 구조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서일본에서 예상되는 거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는 시즈오카현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 중시의 연안부 과밀화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여유를 중시하는 기운이 높아져 내륙부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해 발생 시를 상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 계획과 지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사전(事前)의 부흥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안부 도시의 리노베이션, 내륙 고지대부의 이노베이션, 다중적 지역 연계 축의 형성이라는 3가지 전략을 통해 지역 건설을 추진한다. 또 관민 일체로 방재·감재를 추진하기 위해 ‘내륙 프런티어 추진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정부로부터는 사전 부흥의 모델로서 기대받고 있다. 재해는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사전 부흥의 사고방식을 도입해 지역 성장과의 양립을 지향하는 시즈오카현의 사례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충청남도 ———— RYOO, Jae Seong 팀장

충청남도의 산업 구조는 농업보다 광업·제조업이 많고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2위이다. 발전 요인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면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점이다. 성장의 결실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추진과 선순환 경제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과 안정 등 3대 중점 과제를 정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증대시켰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 자동차와 충전소 보급 등 미래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선순환 경제기반 구축에서는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 중 복합 주거 시설과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등을 만들어 도내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취업자, 일자리 수 등의 목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기간 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고용목표 갱신제도’의 추진과 취업 센터 설치·운영,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등에 임하고 있다.



일본/니가타시 시노다 아키라 시장

니가타시는 혼슈 일본해(동해) 측의 유일한 정령지정도시이다. 평상시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만일의 경우에 최대 구원·복구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일본 최초의 항공 기부품산업 공동공장을 건설 중이다. 공업이외에 농업도 성하다. 식료 자급률은 대도시 2~3%에 반해 니가타시는 63%이며 식료품제조 출하액은 전국 6위이다. 그 특징을 살려 내발형 ‘니가타 뉴푸드밸리’의 형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 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 농업활성화 연구센터를 설립해 농상공 제후와 6차 산업화의 사령탑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에게 식육(食育)과 농사를 체험하게 하는 어그리파크 건설, 식(食)의 니가타 국제상, 식의 국제 견본시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 예로, 니가타시 주조장과 공동으로 푸드 디자인 LABO를 만들어 식품 산업에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침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전략 특구에 뉴푸드밸리 특구를 제안하고, 종합 보세(保稅) 지역의 창설, 농업생산법인 설립 조건 완화도 제안 중이다. 농가 레스토랑은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필리핀/발레르시 Nelianto Carrasco BIHASA 시장

발레르시는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을 개선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 발레르시는 오로라주의 가장 작은 시이나, 주도(州都)로서 무역과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세입 등급을 3급에서 1급으로 올려 루손 중부의 중심적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2012년 발레르시 관광법을 시행하고 시 관광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 관광 인포메이션 오피스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전국 차원의 관광 페어 등을 실시해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천혜의 천연자원과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고, 고속도로 정비로 마닐라~발레르 간 교통 소요 시간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에코 투어리즘에 중점을 두고 하이킹 코스 정비, 역사적 경관 보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발레르시는 저지대가 많고 태풍 피해가 빈번하나 충분치 못한 치수 기능이 하나의 과제이다. 5년간 매년 예산의 5%를 리스크 저감 위원회 펀드에 투자하고 방재·감제 시책에 충당하고 있으나, 치수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정비가 과제이다.

그룹 토의 참가자들



한국/경상북도
JANG, Sang Gil
창조과장



일본/야마가타현
마쓰모토 히로시
오사카사무소장



일본/후쿠시마현
가게야마 히로시
오사카사무소장



일본/미에현
이와타 켄
관광·국제국차장